

실험관 속의 ‘먹거리’

이익섭

국립국어연구원 원장

낮선 단어가 살금살금 눈에 자주 뜨이기 시작하였다. ‘먹거리’가 그것이다. 주로 신문 지상이나 방송을 통해 접하게 되는데 가령 향토 식품을 한자리에 모아 행사를 치를 경우에는 “먹거리가 푸짐하다”는 식으로 으레 이 단어가 등장하는 듯하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일상 대화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 일은 좀체로 보기가 어렵다. 가령 “애, 어디 가야 먹거리가 많을까?”라든가 “북한은 요즈음 먹거리가 부족하다지”라는 말은 들어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 쉽게 윤곽이 잡히지 않는다. 언뜻 떠오르기는 ‘먹’에다 ‘거리’를 합쳐 만들었으니 ‘먹을 거리’ 정도인 듯한데 그렇지도 않은 것이 앞에서 보았듯이 그렇다면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말이 왜 쓰이지 않는지를 설명할 길이 없다. 먹을 거리는 먹을 거리가되 좀 특수한 먹을 거리가 아닌가 하는 것이 근래의 이 단어의 쓰임에서 막연히

잡혀 오는 생각이다. 즉 요리를 하였거나 요리는 하지 않았어도 제자리에서 당장 먹을 수 있는 것 정도에 한정해서, 그것도 일반 가정이나 직장에서와 같은 우리의 일상 생활 환경이 아니고 시장이나 행사장 같은 좀 떠벌리는 분위기라는 배경 속에서만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그 의미와 용법이 아직 불안정 상태에 있는 이 단어가 어느새 국어사전에 올라 있다고 하여 불안한 심정으로 그 뜻풀이를 찾아보았다. 역시 예감이 맞았다. 사전마다 풀이가 다르기도 하거니와 그 풀이가 결코 성실하거나 정확하게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먹을 것·식량·식품’의 풀어쓴 말.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먹을 거리. 식량이나 식품. (동아 새국어사전)

사람이 먹는 온갖 것 (금성판 국어대사전)

먹거리=먹을거리(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온갖 것)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먹거리’가 과연 사람이 먹는 온갖 것을 다 가리키는 단어일까? 앞에서 이미 그럴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지만 몇 경우만 더 想定해 보기로 하자. “우리는 피난을 가면서 먹거리는 죄다 단지에 넣어 땅에 묻고 갔다” “할아버지, 이 먹거리 좀 들어 보세요” “애, 등산을 가려면 먹거리도 챙겨야지” “중국은 이제 적어도 먹거리 걱정은 없게 되었다” 그 어느것도 정상적인 우리말이라고 하기 어렵지 않은가. 앞의 사전들의 풀이가 얼마나 무성의한 것인가가 저절로 드러난다. 적어도 첫번째 사전에서처럼 “...의 풀어쓴 말”이라는 정도

라도 넣어 이 단어가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않은 일종의 순화임을 밝혀 주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먹거리'는 과연 그 출신 성분이 무엇일까? 언제 어떻게 해서 우리 주변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을까? 역사는 1957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다. 당시 세계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 사무국장이던 김민환(1910년생) 씨가 '식량'에 대신할, '식량'이라면 곡물만을 연상하는 경향이 있어 우유나 육류, 과일 등 사람이 먹는 것 전반을 가리키는, 곧 영어 'food'에 짝이 될 만한 말을 찾다가 찾아낸 것이 바로 '먹거리'라 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정부나 학계에서 그의 진정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김 씨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 단어가 국어사전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한다. 1984년 10월 10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食糧의 우리 옛말 '먹거리' 27년 뛰어 辭典에 올랐다>는 제목으로 이 경위를 한글날 관련 기사로 크게 싣고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아울러 1986년에 김민환 씨가 저술한 『먹거리』에 의하면) 한글학회가 이해 『쉬운말 사전』을 간행하면서 이 단어를 수록하였고,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은 1982년의 증보판에서 비록 사투리로서이지만 이 단어를 올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 씨는 1979년부터 '먹거리 연구회'를 창립하여 이 단어가 교과서에 실리고 널리 쓰일 때까지 그 정착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경위를 보면 '먹거리'는 이른바 순화어의 일종으로 출발하였다. '단어'를 '날말'이라 바꾸어 부르는 것과 같은 계열의 새말로 제안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지만 않다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단어=날말'의 관계와는 달리 '먹거리'는 바로 '식량'에 대입될 개념으

로 제안된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새 개념을 위해 新造語를 하나 만들어 낸 것인데 그 제안 설명은 이렇다. '식량'이라고 하면 양곡만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면이 있어 우리 나라 식량 정책이 쌀 위주의 정책으로 흐르는 폐단이 있다. 이 폐단을 없애려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말부터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식량'이라는 단어로는 포괄되지 않는, 사람이 먹는 것 전반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단어로서 '먹거리'를 제안하노라. 즉 '식량'을 '먹거리'로 바꾸는 일은 한자어나 서양어를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는 일반적인 순화와는 그 성격이 달랐던 것이다.

그런데 그 경위야 어떻든, 또 그 성격이 무엇이었던 '먹거리'는 이제 우리 주위에 자주 출현하기 시작하였고, 앞에서 보았듯이 국어사전에도 자리를 잡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먹거리' 정착 운동은 성공한 것일까? 과연 '먹거리'가 '식량'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와 앉았으며, 나아가 '식량'의 부정적인 의미를 극복하고 그보다 더 넓고 더 밝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의미를 부각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가?

누구도 그렇다고 대답하지는 못할 것이다. 점차 자주 쓰이고 국어사전에 까지 등재된 외형적인 면을 보면 성공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애초의 의도와는 거리가 너무 멀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變質을 두고도 적어도 반타작은 된다고 자위한다면 몰라도 이 단어의 창시자는 사실 가슴을 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말이란 그러고 보면 참으로 야릇한 존재다. 이 세상 그 많은 단어를 애초 누가 만들어 쓰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어떤 경로로 여러 사람에게 퍼져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신비감에 빠질 때가 있다. 조그만 유행어

하나만 해도 그렇다. 둔한 사람을 '형광등'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이 누구며 그것은 또 어떻게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으로 퍼져 자리를 잡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신기하기만 하다. 말은 어떻든 누군가가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여 함께 써 주어야 하는 일일 것이다. 즉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럴 때 사람들이 그 말을 써 줄지 어떨지를, 아니면 쓰더라도 제안자가 제안한 바로 그 뜻으로 쓸지 아닐지를, 또는 멀쩡히 잘 쓰다가 언제 버릴지를 짐작할 길이 없다. 말의 생성과 사멸은 이래서 늘 신비롭다.

언제부터인가 '미팅'이란 외래어가 쓰이기 시작하였다. 어원으로 보면 공식적인 회합도 가리키는 단어인데 어느새 낯선 젊은 남녀들이 단체로 만나는 모임만을 가리키는 용법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키(key)'라는 외래어도 자리를 잡아 가는데 그렇다고 장농의 열쇠를 '키'라고 하지는 않는다. '바가지'는 '박'으로 만든 기구인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어느새 '바가지'라 하게 되었다. '洗手'는 어원적으로 손을 씻는 것이었을 터인데 지금은 오히려 손보다는 얼굴을 씻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적이 놀랐다"의 '적이'는 '적계'의 뜻이어야 할 것임에도 정반대로 '많이'의 뜻을 가지기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단어의 운명은 예측키 어렵다.

'떡거리'는 어떻든 생명력은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 단어의 需要가 어딘가에서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며칠 전 신문(『조선일보』 「만물상」란)에서 다음 글을 읽고 바로 이런 자리에 '떡거리'가 적절히 쓰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런던이나 파리를 여행할 때 놓쳐서는

안될 명소가 주말 벼룩시장이자. 런던은 도시 전체가 골동 상가라고 할 만큼 세계 각국의 민속품들이 집결되어 있다. 파리 벼룩시장은 잡동사니나 파는 곳이 아니라 볼 거리 먹거리도 풍성해 잔치판을 방불케 한다.” 바로 이 자리에는 ‘먹거리’ 이상의 적절한 말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먹거리’는 이제 그 존재가치가 생겼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 ‘먹거리’가 온전한 단어로 정착하였다는 뜻이 아님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아직 유동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먹거리’가 무슨 뜻이나, 어떨 때 ‘먹거리’란 말을 쓰느냐고 물어 보면 다 자신 없어 하며 자신들이 받은 인상을 대략적으로 피력한다. 거부감을 느낀다는 사람들도 많다. 온전한 단어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이다.

이 단어의 운명은 좀더 두고 살펴보아야 할 듯하다. 얼마큼 더 널리 뿌리를 내리고 그럴 때 어떤 의미로 굳어져 갈지 아직은 미지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어사전들은 이 단어가 좀더 안정권에 들어설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말을, 그리고 그 뜻이 분명히 잡히지 않는 것을 서둘러 표준어로 대접해 주는 일은 사전의 본분에 어긋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먹을 거리’를 한 단어로 인정하여 표제어(‘먹을-거리’)로 올리고들 있는 것도 ‘볼 거리’나 ‘읽을 거리’를 그러지 않는 것과 통일성이 없어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참에 몇 가지를 더 바로 잡아 주는 일이 필요할 듯하다. 먼저 의도가 좋다고 하여 “‘먹거리’가 잊혀져 가는 우리의 옛말임이 확인됐고”(앞 신문 기사)와 같은 무책임한 이야기나 ‘식량’이란 말 대신 ‘먹거리’를 쓰게 되면 의식개혁이 일어나 “곡물을 비싸게 사들이지 않고 우리 나라에서 나는 먹거

리만으로도 자급자족할 수 있을 것이므로 나라 살림이 넉넉해질 뿐더러 영양을 고루 취할 수 있어서”(앞책 P. 188)와 같은 허황한 이야기가 난무하는 풍토를 방치해서는 안 되리라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다.

또 애초 '먹거리'를 제안한 측에서는 한글학회에 보낸 편지에 “'먹을 거리'의 준말인 '먹거리'란 말은 조어법상 모순이 없으므로 이 말이 표준말로 쓰일 날이 오기를 바란다든 격려에 큰 힘을 얻어”(앞책 P. 286)라고 하였는데 한글학회측 답변을 보면 “'먹+거리'를 '먹을+거리'의 준말로 다룰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라고 하였으니(앞책 P. 285) 이 양자의 불일치도 바로 해명해 주어야 할 것이며, '먹거리'가 과연 우리 造語法에 맞는 것인지도 정확히 해석을 내려 주어야 할 것이다.

준말이라면 뜻이 같아야 한다. 그런데 '먹을 거리'와 '먹거리'는 결코 동의어라고 하기 어렵다. 그 점에서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에서 '먹거리=먹을 거리'라고 하여 앞의 답변의 태도를 바꾼 것은, 또 근래 다른 사전들 중에서도 이 해석을 따르는 경우가 있음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여기서 숙제는 하나 남는다. '먹거리'는 비록 방언에 있다고 하나(이것도 정식으로 방언 조사를 거쳐 보고된 것은 없다) 분명히 인위적으로 '먹을 거리'의 의미로 쓰게 된 것인데 왜 '먹을 거리'와 다른 좁은 의미로 그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 '먹을 거리'는 '먹거리'보다 사용 범위가 넓기는 하나 이 역시 과연 '우리가 먹는 온갖 것'을 가리키는가도 좀더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할 숙제일 것이다. '볼 거리'가 우리가 보는 온갖 것을 가리키지 않듯이 '먹을 거리'도 사람이 먹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지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온 동네를 뒤져도 먹을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

다”처럼 ‘먹을 것’을 쓰면 자연스러운데 그 자리에 ‘먹을 거리’를 쓰면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에 주목해 볼 일이다. 사실 영어 ‘food’에 짝이 될 말을 찾기로 한다면 ‘먹거리’나 ‘먹을 거리’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을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했을 것이다.)

‘먹거리’가 우리 조어법에 맞다는 해석도 역시 재고를 요한다. 비록 ‘접칼’이나 ‘덮밥’처럼 용언의 어간이 직접 명사와 결합하는 방식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거리’ 앞에는 ‘불 거리, 입을 거리’처럼 관형형이 오거나 ‘일거리, 구경거리, 웃음거리, 애깃거리’처럼 명사(사실은 사이시옷을 동반한 명사)가 와야 하므로 엄격히 보면 ‘먹거리’는 정상적인 조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불 거리’나 ‘입을 거리’가 ‘보거리’나 ‘읽거리’가 안 되듯이, 또 ‘먹을 것’이 ‘먹것’이 안 되듯이 ‘먹을 거리’가 ‘먹거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실험 장치를 만들어 그 속에 ‘먹거리’를 집어넣어 놓고는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있는 형국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먹거리’가 걷게 되는 길이 우리에게 많은 귀중한 자료를 남겨 주지 않을까 하여 나는 지금부터 기대가 크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은 ‘먹거리’의 앞날을 지켜본다고 할 때 거기에는 ‘먹거리’에 얽힌 갖가지 無知들이 함께 걷히는가를 보겠다는 뜻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